

# 한병도 민주 원내대표 “5·18 정신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 지선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내란 완전종식·사법개혁 완수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야당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의 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조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란 단죄’를 위한 2차 종합특검과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웅현·노상원·조지호 선고가 예정됐다. 내란 일당은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복한의 공격을 유도

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제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유착과 관련해선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견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별해 정치와 종교유착을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 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jndnews@naver.com

## 광양경자청 입주기업 호실적...매출·수출 증가

### 산업부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 경자구역 평균 크게 상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2024년 기준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매출·수출·사업체 수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광양만권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고용, 매출, 경영 실태 등 총 56개 항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광양만권 입주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9,930억원으로 전년(17조8,254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2.0%)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수출액 역시 1조2,591억원으로 전년(1조222억원) 대비 25.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10.3%)을 크게 상회,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광양만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사업체 수는 총 739개로 전년(702개) 대비 5.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4.4%)을 넘어섰다.

투자액과 고용 지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투자액은 1조1,233억원으로 전년(1조233억원) 대비 9.8% 늘었고,

고용 인원은 2만1,662명으로 전년(2만 755명) 대비 4.4%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 증가율(투자액 14.4%, 고용 8.8%)에는 미치지 못해 향후 신산업 중심의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연계하는 전략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구중권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우주·항공산업 등 핵심 미래성장산업과 세풍산업 이차전지 소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박종원 도의원 “영농부산물 자원 재활용 등 뒷받침”

### 안전처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자원 재활용 등 안전한 처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농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안전 취약 요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 최미숙 도의원 “장애인 접근성 높일 관광해설 필요”

### 전담 해설사 양성 등 촉구

전남도가 장애인 등의 관광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해설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남 열린 전남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관광객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해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활동 예정



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467명이며, 전남도는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해설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시각·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맞춤형 관광 지원을 위한 전담 해설사 양성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 대상 전문 해설 인력이 충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단순한 인원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청각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맞춤형 해설 역량과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언어 활용이 가능한 인력풀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관광해설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동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 우리동네 방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b>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b>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b>청년창업 허브 사업</b>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b>마을공방 운영사업</b>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b>일자리공유 카페</b>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	--	---

###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창업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하고,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동구창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서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b>1F</b>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b>3F</b> · 교육실 · 세미나실
<b>2F</b> · 공용장비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서로 162-1 (충정로 57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